

배 윤 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표 은 주

#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 연구

배 윤 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표 은 주

## 논문개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영역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탐구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과제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탐구의 대상, 즉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아야 하고,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응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현재까지 교수·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으므로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은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물론, 교과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교과서만이 수업 자료도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점을 생각한다면, 1종 교과서인 국어 교과서는 표준화된 교재라는 위상에 알맞게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단원을 구성하고 적절한 수업 자료를 제시하여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한 교재가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과목 중 7·8·9학년, 즉,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반영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 『국어』와 『생활 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교과서의 학년별, 학기별 내용 체계가 선행 학습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확장·심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 내용 체계가 교

육과정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본 뒤, 논의 대상이 되는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즉, 교과서 단원 구성을 학년별로 살펴보고, 국어지식 영역과 다른 영역 간의 유기적 관련성의 문제를 밝혀보았다. 또, 실제 평가문제를 제시해 학습자의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IV장에서는 이러한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어지식 내용 체계 구성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영역별, 학년별 국어지식 영역의 단원을 재구성해 보았다. 또, 재구성한 국어지식의 내용 체계를 실제 교수·학습 계획으로서 제시해 보았다.

학교 교육이 공식화되고 학급 규모도 지역의 구분 없이 대형화된 지금, 교과서는 이제 교육을 전국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학습 자료이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방향으로 교과서의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선행 학습의 상황에 알맞은 학습 내용의 체계를 갖추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	6
II.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내용 체계의 교육과정 분석 .....	7
1.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	7
2.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의 내용 .....	10
III.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문제점 .....	19
1. 학년별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반영의 실제 .....	19
2. 교과서 단원 구성의 문제점 .....	27
3. 계열성의 문제점 .....	29
4. 평가의 실제 .....	39
IV.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개선 방안 .....	43
1. 국어지식 내용 체계 구성의 조건 .....	45
2. 교과서 단원 구성의 개선 방안 .....	45
3. 교수·학습 적용의 실제 .....	54
V. 결론 .....	59

## 참 고 문 헌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어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 영역과 ‘문학’, ‘국어지식’의<sup>1)</sup>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각 영역의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국어』와 『생활 국어』의 두 권으로 보급하고, 『국어』에는 읽기와 문학 영역을, 『생활 국어』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을 실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국어지식’ 영역의 위상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 원인으로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적 가치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그간의 연구가 취약했다는 것과 현행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평가 목표가 중등 교육의 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요인 등이 지적되었다.<sup>2)</sup>

7차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교육 내용은 내용 체계 · 방법 · 평가 등에 대해서 최근 많은 지적과 논의들이 있지만 이전의 교육 과정과 비교해

---

1)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22.

제 4차부터 제 6차 교육 과정까지 사용하던 ‘언어’라는 교육 내용 영역명을 ‘국어지식’으로 조정하였다. 그 이유는 ‘국어’의 교육 대상이 되는 언어가 ‘국어’이지 ‘언어’ 일반일 수 없고, ‘언어’와 ‘국어’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의 밑에 놓이게 되며, ‘언어’ 영역에서 제시 하였던 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언어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국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역명을 ‘국어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데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이관규, 『학교 문법론』, 1999.

이관규는 교육과정에서 배당하고 있는 영역별 단위 수와 시 수를 통해 문법교육의 위상 약화를 지적하고 학교 문법 교육이 민족 차원의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 차원의 교육 과정 속에서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문법 내용의 출제, 문법 교수법과 평가론 연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볼 때 발전적인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국어지식에 관한 내용이 없는 1·2·3차는 제외하고, 4차부터 비교해 보더라도 4차에서는 단순히 국어와 언어에 관한 지식 습득 자체에 중요성을 두었으며 5차 교육과정에 와서 ‘국어와 언어에 관한 지식’이 실제 국어 생활에 사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언어’의 효용성과 정체성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일원화된 국어과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국어 교과 여섯 영역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과 탐구 활동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부각시켰다. 즉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지식’ 영역은 10년이라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안에서 국어능력의 기초로서, 다른 영역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선별된 교육 과정의 내용이 연계성과 위계를 가지고 잘 짜여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에 잘 표현되어야 한다. 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하므로 교과서 체제 역시 그 운영 체제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sup>3)</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관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연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중학교의 국어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sup>4)</sup> 이미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에서 시행되어 중학교 전 학년에 걸친 국어과 교과서가 2003년에 모두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실현 양상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

3) 이재승, 「국어과 수준별 수업의 특성과 방향」, 2001.

4) 제7차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11학년부터 12학년 까지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 따르면 11~12학년의 학습자가 선택 과목으로 『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학교 교육에서 국어지식 영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중학교 과정인 7학년부터 9학년까지가 유일하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인 10학년은 체계적으로 국어지식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그 동안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각 영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어지식 영역이 교육과정 내용에 실현된 양상과 그 문제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연구사 검토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단원 구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삼형(1994)에서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실 현장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한 학습 자료로 보는 데서 출발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가 2001년, 1학년 과정부터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학습을 위하여 개발된 교과서의 외형 및 전체적인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혜경(2001)은 7차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 학년별 연구, 범주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결과 6차에 비하여 정체성 및 교육적 가치와 실용성 측면에서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범주와 하위 영역에 따른 학습 요소의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하고,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정의 학습량을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중숙(2002)은 7차 교육과정의 특성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 및 단원 구성 체제를 살펴보고 있다. 결과로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은 활동 중심의 총체적 언어 교육을 위한 영역 간 통합 구성이며, 단원의 구성 체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삽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제재와 활동을 제

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전체 체제가 학생 활동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정해진 교과 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루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에 담긴 모든 내용에 숙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교과서를 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인숙(2002)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서를 통해 7차 교과서가 지향하고 있는 단원 구성 체제 및 영역 구성 체제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글에서 밝혔듯이 전 학년에 걸친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민현식(2002)은 국어지식 내용의 배열과 조직에 대한 위계화 기준을 제시하였다. 초등 6년 기본 과정은 기초 국어지식과 초급 국어지식으로 나누었다. 중·고교 6년 과정은 중급 국어지식과 고급 국어지식으로 나누어 내용을 반복, 심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 ‘국어의 규범과 적용’은 ‘문법과 규범’으로 합치며, ‘국어에 대한 태도’는 설저알지 않는 두 범주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범주의 상세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주영(2002)은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지식 내용과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 내용을 『문법』(1996) 교과서와 비교하여 단원 구성의 문제점, 보완할 내용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허정연(2002)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문법 단원의 분석 결과, 내용 구성의 논리적 구조와 계열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문법 단원의 내용이 논리적 국조에 기초하여 전 학년에 연결되는 계열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승현(2003)은 개정된 1,2학년의 국어과 교과서가 학습 요소 면에서

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나치게 실제를 강조하고 있어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또 학습량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과는 달리 분량이 너무 많아, 영역별 불균형을 가져와 결국 ‘읽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성희(2003)는 6차와 7차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내용의 분석과 평가를 한 다음, 내용의 선택과 조직 측면에서 둘을 비교한 결과에서 7차는 필수 국어지식 내용을 더 적게 포함하고 계열성 원칙이 더 많이 지켜지지 않아 별로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병훈(2003)은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국어지식’ 단원을 지식·사용·태도 영역으로 분류하여, 어학적 지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 영역’의 5개 단원과 ‘사용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지식 영역’의 단원으로 바뀌어야 할 1개 단원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역 분류를 다시 바꿔 지식·사용 영역 구별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교과서의 개편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의 연구이기 때문에 학년 간 계열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간의 한계점 극복 방안을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활용 면에서 모색하고 있어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의 구현 정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학교 3학년 전 과정의 교과개편이 2003년 2학기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이 전체 학년의 교과서 단원 구성에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연구는 이제 더욱 활발히 진행되리라 본다.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고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과정 중에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 『국어』와 『생활 국어』를 중심으로 ‘국어지식’ 영역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의 초점은 국어지식 영역의 학년별, 학기별 단원 구성이 선행 학습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확장·심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국어 교과서가 교육과정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펴본 뒤, 논의 대상이 되는 중학교 교과서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반영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그 문제점에 적합한 대안으로 영역별, 그리고 학년별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논지를 펴 나갈 것이다. V장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중학교 국어지식 내용 체계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 Ⅱ.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고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6차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체계를 보면 국어과는 ‘국민 공통 과목’으로서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인 국어와 ‘선택과목’인 국어 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1~10학년)에서는 ‘문법’을 학년별로, ‘국어 지식’ 영역에서 필수로 다루고 있고, 고등학교 11학년부터는 독립된 교과목으로서 심화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어과의 7차 교육과정과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다음 논의에 대한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5)</sup>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

이 교육과정은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

5)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3.

수 있다. 특히 제 6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의도된 교육과 전개된 교육, 실현된 교육을 최대한으로 접근시키고자 하는 조치이다. 이를 이어받아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여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 과정을 개정하였다.

6차와 구별되는 구체적인 개정 중점사항은 학교 급간 별 교육이 아닌 학년 간 연계성을 가지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을 단일한 교육 편제로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학습자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였다. 즉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자기 주도적인 개별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또 교육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을 조정하였다. 이는 학습 분량의 과다로 초래될 수 있는 수업 부실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국어과 역시 이 교육과정의 의도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동안 국어를 배우며 수준별 교육과정으로서 기본 학습 이후 보충과 심화로 나누어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다. 국어 지식 영역 교육의 내용 역시 이 편제에 따라 구성되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동안 최적화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선택 심화 과목으로서 ‘문법’ 과목에서 국어지식을 학습하게 된다.<sup>6)</sup> 7차 교육과

6) 박영순, 『한국어 문법 교육론』, 1998, p.13에서 재인용.

정에서 국어 교육의 내용을 범주화한 실체가 6차 교육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취 수준 개념의 도입 없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국어 교육의 내용 구조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중시한 점은 6차와 크게 다르다. 먼저,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이 취한 국어과에 대한 관점, 즉 언어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의 교육 내용이 국어 교육 목표 성취를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완하였다. 그 대신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국어 교육의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각 영역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이 국어 교육의 최상위 목표 성취에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예컨대, 국어학의 학문적 탐구 결과가 초·중등학교의 국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그 지식이 학습자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의 학습도 관련 지식 체계의 전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sup>7)</sup> 따라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동안의 국어지식 교육이 국어과의 목표인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심화 과목으로서의 문법 과목은 국어 과목 내의 국어지식 내용을 심화시키고 확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내용을 범주화할 때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6차 교육과정에서 과정별 필수 과목이었던 문법과목이 선택과목이 됨으로써 국어 과목의 위상 강화와는 대조적으로 국어지식 교육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견해들이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초·중학교에 문법 과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는 수학능력시험 등에서 문법 지식에 관한 평가가 사라지면서부터라는 등의 여러 가지 분석 이유가 있으나 이도영(1996)은 문법 교육이 현실의 언어 사용과 괴리가 있고, 문법 교육이 지식 중심 교육이며, 그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7)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22.

으로서의 ‘학습 요소(내용)’와 이 학습 요소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서의 ‘수행’, 두 차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 학습자가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려 깊은 국어 사용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지적 교육 내용과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범주로 구분하여 ‘본질’과 ‘원리’로, 실제적인 국어 사용 경험을 체화하는 범주로 ‘실제’를 설정하였다.

## 2. 국어지식 영역 교육과정의 내용

### (1) 성격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였다. 즉, 국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목적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어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의 핵심적 과제가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있음도 분명히 하였다.<sup>8)</sup>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는 지식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의 교육은 교사가 단순히 전달

---

8)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를 참고.

하는 교육 활동이 아니라 국어사용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 생산 경험을 가지게 하고, 학습한 지식이 실제의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9)</sup>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6차 ‘언어’ 영역을 ‘국어지식’으로 조정하였다. ‘국어지식’이라는 용어는 김광해(1996)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의 영역명 ‘언어’를 ‘국어지식’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언어’라는 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표현력과 이해력 또는 ‘언어’의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는 점, 보통 교육의 일환으로 실천되는 초·중등학교의 국어 교육이 언어학 일반이나 국어학의 지식 체계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 국어에 대한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교육 내용의 선정과 각각의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조정하였다.

‘국어’의 교육 대상이 되는 언어가 ‘국어’이지 ‘언어’ 일반일 수 없고, ‘언어’와 ‘국어’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의 밑에 놓이게 되며, ‘언어’영역에서 제시하였던 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언어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국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역명을 ‘국어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데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0)</sup>

9) 노명완 외,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국어과 교육』, 2003, pp.197-198.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국어과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제 6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학교급별로 국어과의 성격을 차별화한 것과 달리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국어과의 최상위 목표로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지식·문학의 6영역이 각기 기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둬으로써 국어과의 성격을 명백하고 통일성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0) 교육부 (위의 책, 1999, pp.14-20.)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4차부터 제 6차 교육과정까지 사용해 온 ‘언어’라는 영역명 대신 ‘국어지식’이라는 영역명을 사용하였다. 이는 교과명으로서의 ‘국어’와 영역명으로서의 ‘언어’의 관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 영역의 교육 내용적 성격

‘국어지식’은 ‘국어’에 대한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즉, 국어지식은 오직 ‘우리말’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어지식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립 영역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 (2) 목표

제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 목표는 ‘전문’과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에 관한 학습의 결과,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도달점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국어과의 지향점이 인지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향상,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태도, 가치, 동기, 습관 등에 대한 학습을 균형 있게 하여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한정된 균형 잡힌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였다.

제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 목표의 또다른 특징은 초·중·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여 제시한 점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교육 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성취 수준에 따라 국어 사용 양상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이 학교 급별 성취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으로서의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11)</sup>

---

과 교육의 목적 및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국어지식의 영역의 목표는 물론 상위 영역인 국어 교육 목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교육의 목표를 수렴해서 박영순(2004)이 총괄적으로 국어지식 영역을 포함한 규범 문법적인 내용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sup>12)</sup>

11)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2003, p82.

목표를 ‘가~다’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국어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가’는 언어 활동 및 언어와 문학에 관한 지식 측면에, ‘나’는 국어를 활용한 이해와 표현 기능 측면에, ‘다’는 국어 및 국어문화에 관한 태도 측면에 관계되는 목표이다. 이러한 교과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고 국어와 국어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 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12) 박영순, 『한국어 문법교육론』, 2004, pp.24-28.

[문법 교육의 목표]

- 가. 전반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
- 나. 고등 정신 능력의 함양
- 다. 논리적 사고력의 고양
- 라. 사회적 규범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
- 마. 학문적 탐구심 배양

위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반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

이 목표는 우선 선천적으로 배운 언어 능력 이외에 만 7세 이상의 초등학교에서부터 의식적으로 문법을 배우면서 언어의 보편성과 국어의 특수성에 대한 언어 지식을 쌓고, 음운, 형태, 통사, 담화 차원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어에 대한 관찰력, 분석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언어 본질에 대한 이해는 언어 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북돋아주고 언어 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하도록 해주므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외국어 교육의 기초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나. 고등 정신 능력의 함양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이란 이해력, 분석력, 비판력, 판단력, 종합력 등을 말하는 것이다. 문법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언어에 대하여 그 내적 구조와 규칙을 발견하는 탐구학습이므로 문법 학습을 통하여 언어 사물의 본질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 분석 비판, 응용 종합 등 고등 정신 능력이 고양될 것이다.

다. 논리적 사고력의 고양

문법의 많은 부분은 추리력, 논증력, 논리적 설득력, 이성화 등을 필요로 하

게 되므로, 문법에 대한 지식이 축적될수록 논리적인 사고력이 신장될 것이다. 이는 문법 교수-학습이 종래의 암기식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국어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언어의 규칙이나 원리를 추론하도록 하는 학생 중심 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더욱 신장될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함께 언어의 논리적인 면을 발견·확인하게 되며,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 논리적 사고력은 신장될 것이다.

#### 라. 사회적 규범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

우리는 문법 학습을 통하여 언어의 사회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어법을 사용하며,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화자-청자,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경어법을 사용하여야 사회적 의사 소통에 지장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을 학습하면서 언어적인 면에서나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국어의 특질을 이해하게 되고, 한국을 상징하거나 한국의 문화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보다 깊게 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국어 관련 전공자는 국어 사용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한국 문화의 기수로서 한국 문화에 남다른 이해와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문법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마. 학문적 탐구심 배양

교육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문법 학습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인간의 정신 세계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 준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탐구심의 배양은 다른 학문 영역에까지도 확대되어 모든 사물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원리를 발견하려는 태도가 생기게 되어 결국 문법에 관한 학습이 다른 분야 학문의 탐구심 배양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제시된 목표는 다시 영역별, 학교별, 학년별 하위 목표를 세우고, 그 밑에 학습자의 연령, 학년, 문법 능력의 정도, 문법 교육의 목표

에 따라 다시 구체적 하위 목표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똑같이 ‘전반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의 구체적인 하위 목표와 8학년의 하위 목표는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 (3) 내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교육 활동은 각 영역의 ‘본질’, ‘원리’,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과 ‘실제’ 범주의 교육 내용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의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sup>13)</sup> 각 범주간의 관계를 점선(……)으로 표시한 것도 그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sup>14)</sup>

---

13) 최현섭 외, 2002, pp.85-86.

교육과정의 내용이란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성취하거나 습득, 숙달할 수 있는 지식·능력·습관 및 태도 등 실체를 의미한다. 국어교육이 다루는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언어적 정보, 지적 기능, 인지전략, 태도, 언어수행기능’의 다섯 범주가 존재한다.

14)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학습론』, 2001, p.290.

‘국어의 본질’과 ‘국어의 이해와 탐구’ 범주의 교육 내용은 국어에 대한 지식이고, 이의 일차적인 교육의 목적이 지식의 이해와 활용에 있으므로, 탐구 중심의 학습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의도하였다. ‘국어의 규범’ 범주의 교육 내용은 맞춤법 및 표준발음 등과 관련된 각종 규범에 대한 지식 습득과 그 지식을 실제의 국어 생활에 활용하여 더 향상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규범과 적용’이라는 범주명을 사용하였다. 이들 교육 내용이 ‘내용 체계’에는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범주 간, 교육 내용 간의 상호 교섭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표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의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sup>1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본질</li> <li>- 언어의 특성</li> <li>- 국어의 특질</li> <li>- 국어의 변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이해와 탐구</li> <li>- 음운</li> <li>- 낱말</li> <li>- 어휘</li> <li>- 문장</li> <li>- 의미</li> <li>- 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에 대한 태도</li> <li>- 동기</li> <li>- 흥미</li> <li>- 습관</li> <li>- 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규범과 적용</li> <li>- 표준어와 표준 발음</li> <li>- 맞춤법</li> <li>- 문법</li> </ul>		

위와 같은 범주 내에서 선정된 국어 지식 영역의 중학교 학년별 내용은 지식의 난이도와 순차성, 언어 구조의 복잡성, 동일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였다. ‘국어 이해와 탐구’ 범주의 교육 내용은 ‘언어의 본질적 속성 → 언어와 주변 세계와의 관계’ 순으로, ‘국어에 대한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은 ‘우리말의 중요성 인식 → 규범에 맞는 국어사용 태도 형성 → 우리말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형성’ 순으로 배열하였다.<sup>16)</sup> 이러한 원리로 구성된 국어지식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1학년>

15) 박영목 외, 위의 책, p.291.

1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2001, pp.18-19.

- (1)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와의 관계를 안다.
- (2) 음절의 개념을 안다.
- (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 (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 (5)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 (6) 담화의 구성을 안다.
- (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중학교 2학년>

- (1)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 (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
- (3)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 (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 (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 (6) 발화의 기능을 안다.
- (7)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중학교 3학년>

- (1)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 (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 (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 (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 (5) 문장의 구조 때문에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 (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 (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Ⅲ.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문제점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제7차 교육과정 내용과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내용체계의 교과서 실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학년별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반영의 실제

Ⅱ장에서와 같이 선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자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교과서이다.<sup>17)</sup> 교육과정에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과 학습자 실태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1차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실현되어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범이 되는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학습과 평가가 교과서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국어과 교육은 국어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21세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목표달성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이라는 단일한 내용 체계와 목표를 갖는 만큼 교과서의 내용 역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교육 내용과 단원 구성의 적합성과

17)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국어과목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 국어』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에는 읽기와 문학 영역을, 『생활 국어』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이 단독으로 또는 영역이 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과의 유기성을 잘 갖춰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학년별로 중학교 과정의 국어지식 내용 체제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학년

1학년 교육과정 내용과 국어지식 영역 단원 구성을 비교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표2] 1학년 국어지식 영역 단원 구성과 교육과정 내용 비교

학기	단원명	영역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대단원 학습 목표
		영역	교육과정 내용	
1학기	4. 국어생활의 반성 (1)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2)국어 생활 반성하기	국어지식	(4), (7)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을 바르고 곱게 쓸 수 있다.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1)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2)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	말하기  국어지식	(4) <sup>19)</sup>  (6)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할 수 있다.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다.
2학기	2. 낱말과 형태소 (1)음절과 어절, 낱말 (2)형태소	국어지식	(2), (3)	·낱말과 형태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낱말과 형태소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5. 낱말의 의미 (1)동음 이의어 (2)다의어	국어지식	(5)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알 수 있다. ·문맥 속에서 낱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에 제시된 1학년의 교육 내용과 국어지식 영역

18) 통합 영역의 경우 해당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도 함께 표시한다.

19) ‘말하기’ 영역 1학년 교육과정 내용 (4)항목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이다.

단원 구성을 비교한 결과, 첫째 교육과정 내용 (1)항목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와의 관계를 안다’는 국어지식 영역 단원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같은 학년의 ‘읽기’ 영역 ‘6. 언어의 세계 (1)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단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항목 ‘음절의 개념을 안다’는 ‘2. 낱말과 형태소’ 단원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세부 내용에 의하면 음운과 음절의 관계를 아는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음운’에 관련된 내용은 2학년 과정에 있으므로 학년 간 계열성에 맞지 않는다.<sup>20)</sup> 즉, 음절의 개념만이 반영되어 있고 음운과 음절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학습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에는 제시되지 않은 어절의 개념까지 다루고 있다 ‘음절’ 역시 학습 목표 설정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셋째, (4)항목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에 해당하는 ‘4. 국어 생활의 반성’ 단원의 학습 목표나 학습 활동에는 ‘전문어’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소단원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에는 교육과정 내용에 없는 토박이말, 외국어와 외래어에 관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 내용과 학습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

20) 교육과정 세부 내용에 의하면 (2)항목은 ‘음절의 형성 원리 알기, 음운과 음절의 관계 알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음절의 개념 알기 등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2학년

2학년 교육과정 내용과 국어지식 영역 단원 구성을 비교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2학년 국어지식 영역 단원 구성과 교육과정 내용 비교

학기	단원명	영역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대단원 학습 목표
		영역	교육과정 내용	
1학기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1)국어의 언어적 특징 (2)국어의 음운	국어지식	(1), (2), (3)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알 수 있다. ·국어의 음운이 지닌 특징을 말할 수 있다.
	6. 바르게 쓰기 (1)바른 문장 쓰기 (2)올바른 국어 생활	쓰기  국어지식	(4) <sup>21)</sup>  (7)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다.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2학기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1)낱말 형성법 (2)국어의 관용어	국어지식	(4), (5)	·낱말 형성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관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말할 수 있다.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1)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2)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말하기  국어지식	(1) <sup>22)</sup>  (6)	·발화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2학년 과정의 학년별 내용 및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1학기 ‘6.

21) ‘쓰기’ 영역 2학년 교육과정 내용 (4)항목은 ‘문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이다.

22) ‘말하기’ 영역 2학년 교육과정 내용 (1)항목은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이다.

바르게 쓰기' 단원, 특히 소단원 '(1) 바른 문장 쓰기'의 학습 내용은 문법에 관한 것으로 학습 활동 대부분이 우리말의 어순, 높임 표현, '못 · 안' 부정문의 차이, 과거 · 현재 · 미래 시제, 문장의 호응 관계 등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에는 문법 내용의 이해에 관한 항목이 어디에도 없다. 단지 '쓰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에 '문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는 항목이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단원 내용도 문법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이 쓰기 연습을 위한 '학습 활동'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우리말의 중요한 문법 기능들에 관한 학습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다. 즉,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국어지식 영역 내용 (7)항목만으로는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없다.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의 개념 및 내용에 관한 이해가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즉, 표준어와 표준 발음상의 문제인지, 문법이나 맞춤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어 순화의 문제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3) 3학년

3학년 교육과정 내용과 국어지식 영역 단원 구성을 비교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 3학년 국어지식 영역 단원 구성과 교육과정 내용 비교

학기	단원명	영역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대단원 학습 목표
		영역	교육과정 내용	
1학기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1)맞춤법의 기능 (2)맞춤법에 맞게 쓰기	쓰기  국어지식	(6) <sup>23)</sup>  (6), (7)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하는 까닭을 안다.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
	4. 음운의 변동 (1)음절의 끝소리 규칙 (2)음운의 동화 (3)음운의 축약과 탈락	국어지식	(2)	·우리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해한다. ·우리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6. 남북한의 언어 (1)남북한 언어의 차이 (2)남북한 언어의 나아갈 길	말하기  국어지식	해당항목 없음  (1)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한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2학기	2. 문장의 구조 (1)문장의 구조 (2) 문장의 주성분 (3)문장의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 (4)중의적 표현	국어지식	(4), (5)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알 수 있다. ·한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안다.
	5. 품사의 종류 (1)단어의 분류 (2)품사의 특성	국어지식	(3)	·단어 분류의 필요성과 기준을 알 수 있다. ·각 품사의 특성을 알 수 있다.

3학년 과정의 학년별 내용과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3학년 1학기 ‘6. 남북한의 언어’ 단원은 국어지식과 말하기의 통합 영역으로 되어 있지만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관한 ‘말하기’ 교육과정 내용은 없다. 그리고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어떤 범주의 내용 항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6)항목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는 1학기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 항목은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이면서도 맞춤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이해, 맞춤법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이 없다.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면 무엇이 맞춤법에 맞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맞춤법에 내용적 이해에 관한 학습 목표 설정도 찾아볼 수 없는데,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까닭을 안다’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학습 목표만으로 맞춤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중학교 1·2·3학년의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교과목별 구성 체제에 따라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1·2·3학년의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도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교과서에서 보완되기 전까지는 교사들에 의해 실제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

23) ‘쓰기’ 영역 2학년 교육과정 내용 (4)항목은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 2. 교과서 단원 구성의 문제점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탐구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과제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탐구의 대상, 즉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아야 하고,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응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의 교과서 단원 구성을 따라서 국어지식 영역의 수업을 했을 때, 선행 학습만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학습이 없어서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조 용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띄어쓰기 규정을 배워야 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학교 과정에서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국어지식 영역을 교수·학습했을 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원과 해당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6] 구성이 부적합한 단원의 활동 내용

학년-학기 과목	단원	영역	활동 내용
1-2 생활국어	2. 낱말과 형태소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1) 활동2, 활동3, 활동4 ·소단원(2) 활동1	·단어, 낱말, 형태소 등을 나누는 활동
2-2 생활국어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단원 전체	·합성어를 어근과 접사로 나누고, 관용어의 특징 등을 알아보는 활동
3-1 생활국어	3.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소단원(1) 활동1 ·소단원(2) 활동2	·맞춤법에 맞는 단어나 문장을 찾고 문장에서 직접 띄어쓰기를 하는 활동
3-1 생활국어	4. 음운의 변동	·단원 전체	·구개음화의 개념, 발생 원인, 예 등

위 표의 구성이 부적합한 단원의 활동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1학년 2학기 생활국어 ‘2. 낱말의 형태소’ 단원의 문제점은 합성어, 품사, 맞춤법 등의 띄어쓰기 규정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학습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품사와 띄어쓰기 등을 먼저 익힌 후에 학습해야 한다. 2학년 2학기 생활국어 ‘2. 낱말의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단원은 특별한 문법적 지식이 필요 없는 쉬운 내용으로 2학년 2학기에 학습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선행 학습이 없어도 학습할 수 있으므로 1학년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3.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에서는 선행된 품사에 대

한 지식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품사에 관련된 단원을 먼저 학습한 뒤 배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옮긴다. 또, 3학년 1학기 ‘국어’의 2단원 ‘읽기’ 영역에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 등의 문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설명문이 실려 있어서 이런 음운 현상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 있어야 ‘읽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학년 1학기 ‘4. 음운의 변동’ 단원을 ‘읽기’ 영역과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1단원으로 옮겨 ‘국어’와의 연계성을 높인다.

### 3. 계열성의 문제점

‘4. 음운의 변동’ 단원은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소화하기에 적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계열성<sup>24)</sup>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한다는 원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중학교 3학년 ‘국어’에서 ‘읽기’ 영역에 해당하는 ‘2. 중심 내용 파악

24)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 계속성과 계열성을 들 수 있다. 계속성은 선정된 내용 및 학습 경험의 조직에 있어서의 종적 관계를 표시하는 원으로 어떤 교육 내용이든 그것이 학습자의 경험 속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인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반복 학습이 없으면 습득된 교과 내용은 망각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수업해야 할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인 영역의 경우보다 기능의 영역이 더 긴 시간을 요구하며, 또 기능의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이 더 긴 시간이 걸린다. 계열성은 계속성과 마찬가지로 종적 조직에 관련되어 있으나, 이것은 더 발전된 개념이다. 즉 선행 경험(내용)에 기초하여 다음의 교육 내용이 전개되어 점차적으로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속성은 동일 수준의 교육 내용에 대한 반복적 학습을 뜻 하는 것이고 계열성은 수준을 달리한 동일 교육 내용의 반복적 학습을 뜻한다.

이 외에도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 통합성을 들 수 있다. 통합성은 교육내용의 횡적 조직에 관계되는 개념으로, 여러 영역에서 학습하는 내용들이 학습과정에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여러 교과와 여러 학습 상황에서 얻어진 내용이나 경험들이 상호 연결되어 통합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학습과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는 것이다. 교육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서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육 내용이나 경험들 간에 불균형과 부조화가 생겨나고, 또 내용의 중복·누락·상극의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하기’<sup>25)</sup> 중 소단원 ‘(1) 표준어와 방언’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 특징, 가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살펴보자.

다음으로, 방언은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와 같은 현상이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인이 그만큼 말을 쉽게 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방언 속에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옛말에서 쓰이던 어휘가 그대로 쓰이는가 하면, 불규칙 용언이 규칙 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옛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sup>26)</sup>

인용한 것과 같이 ‘국어’ 교과서의 읽기 영역인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중 소단원 ‘(1) 표준어와 방언’에는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 옛말, 불규칙 용언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읽기 영역에서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이해를 위한 내용이지, 결코 국어지식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인용문에서처럼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 등에 관해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언급할 뿐이다. 그러나 본문 중에 언급되어 있는 문법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문법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5) 『중학교 3-1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p.127.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글을 읽으며 중요한 문장을 파악할 수 있다.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1)에 해당하는 (1) ‘표준어와 방언’은 표준어와 방언이 지닌 기능과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러한 글을 읽는 목적은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중심 내용을 바르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소단원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글 속에 담겨진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도표로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26)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1』,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pp.42-43.

학습 활동27)

내용 학습 2. 다음 말들은 방언의 가치 중에서 어느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말해 보자.

김치 - 짐치 먹이다 - 맥이다	→	
더워 - 더버 여우 - 여시	→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좀 혀. ·아따! 날씨 겁나게 좋아부요. ·보소, 지금 몇 싱교?	→	

위의 내용은 교과서 학습활동을 인용한 것인데, 읽기 영역의 교과서 내용 중에 국어지식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한 뒤, 학습 활동에서는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를 통해서 응용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위에서 방언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예로 제시된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 불규칙 용언, 규칙 용언은 과연 어떻게 지도되고 있는지, 학습활동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예시 답안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이다.

☛ 끌어주기: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이 글의 중심내용인 ‘방언의 가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휘나 문장을 통하여 이해시키려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구개음화’나 ‘전설 모음화’ 같은 음운 현상이나 지금은 사라진

27) 위의 책, p.46.

‘△, ㅍ’의 변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본문에는 이런 문법적인 설명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게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문법적인 면에 치우쳐서 ‘방언의 가치’를 이해시키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28)

▶ 예시 답안:

김치 - 짐치 먹이다 - 맥이다	→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 있다.
더워 - 더버 여우 - 여시	→	중세 국어에서 ‘△, ㅍ’으로 표기되던 것들이 방언에서는 각각 ‘ㅅ’과 ‘ㅍ’으로 살아남아 있다.
◦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좀 하. ◦ 아따! 날씨 겁나게 좋아부요. ◦ 보소, 지금 몇 시교?	→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2단원 중심내용 파악하기는 읽기영역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어지식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앞에서 언급된 국어지식 내용들은 어디에 배열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4. 음운의 변동’에 음절의

28) 『중학교 3-1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p.136.

끝소리 규칙과 자음 동화, 음운의 축약, 음운의 탈락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음운 변동은 무엇이며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지, 음운 규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공부하게 된다.

활동2. 구개음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굳이 → [구디] → [구지]

같이 → [가티] → [가치]

정리

자음 ‘ㄷ, ㅌ’이 ‘ㅣ’ 모음을 만나 ‘ㅌ, ㅎ’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sup>29)</sup>

## 2) 전설 모음화

전설 모음화는 ‘모음 동화’의 하나로 고등학교 『문법』 ‘2.말소리 (2) 음운의 변동’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중학교 국어 지식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생활국어 3단원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에서 모음과 전설모음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전설 모음화라는 음운의 변동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4. 음운의 변동’ 단원에 내용은 없지만 구개음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지식 중에서 ‘ㅣ’, 모음이 ‘전설 고모음’이라는 내용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설 모음화는 학습자들의 선행 학습을 바탕으로 함께 이해할 수가 있다.

---

29) 『중학교 생활국어 3-1』, pp.83-84.

[표5] 국어의 모음 음운 체계<sup>30)</sup>

	앞(전설모음)		뒤(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높음(고모음)	ㅣ	꺀	ㅡ	ㅓ
중간(중모음)	꺁	꺒	꺓	꺔
낮음(저모음)	ㅐ		ㅑ	

이 표에서처럼 전설 고모음인 ‘ㅣ’ 모음이 후설 중모음인 ‘꺓’ 모음보다 전설 중모음인 ‘꺁’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발음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이다’가 [뻑이다]로 발음이 나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영역과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4단원에 배열되어 있는 ‘음운의 변동’ 단원을 1단원으로 옮겨서 순서상 먼저 학습한다면, 학습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방언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 3) 불규칙 용언

용언이라는 단어가 선택 조직되어 있는 국어지식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5. ‘품사의 종류’단원이다. 이 단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숨어 있는 규칙성을 찾아 밝혀 보고, 이를 통해 언어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학습 내용이다.

이 대단원은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과, 품사의 종류와 그 기능에 대해 공부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소단원 (1) ‘단어의 분류’는 대상을 분류하는 이유와 그 기준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

30)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1』,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해한 다음,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소단원 (2) ‘품사의 특성’은 품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각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sup>31)</sup>

소단원 (2) ‘품사의 특성’에서 학습자들에게 용언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교사용 지도서에서 찾아 그대로 옮겨 적어 보았다.

## 활동 2

### 활동의 취지 및 지도 방법

이 활동은 용언(동사, 형용사)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다양한 문장을 살펴보는 중에, 동사와 형용사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 활동 풀이

활동 2 동사와 형용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① <보기>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그 기본 형태를 적어 보자.

■ 끌어주기: 이 활동은 동사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미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쉽게 찾아 낼 것이다. 용언을 학습할 때에는 기본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용언은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기본형을 바탕으로 하여 그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 ▶ 예시 답안:

- (1) 철수가 밥을 먹는다. (먹다)
- (2) 비행기가 하늘 위를 날아간다. (날아가다)
- (3) 어른들은 조용한데 아이들이 떠든다. (떠들다)

3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3-2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교학사, 2003), p.442.

② <보기>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그 기본 형태를 적어 보자.

☛ 끌어주기: 이 활동은 형용사에 대한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과 같이 문장 속에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 그 기본형을 찾아보게 한다.

▶ 예시 답안:

- (1) 장미가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 (2) 네 피부는 비단처럼 곱구나. (곱다)
- (3) 산은 높고, 강은 기네. (높다, 길다)

③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자.

☛ 끌어주기: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활용은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결합되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에 그 형태가 변한다는 특성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말해보고, <보기>와 같은 순서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자.

▶ 예시 답안:

① 입다 (동사)

- 어머니가 사 주신 새 옷을 입는다.
- 어머니가 사 주신 새 옷을 입었다.
- 어머니가 사 주신 새 옷을 입는구나.

② 달리다 (동사)

너는 매우 빨리 달린다.

너는 매우 빨리 달렸다.  
너는 매우 빨리 달릴 것이다.  
너는 매우 빨리 달리는구나.

③ 예쁘다 (형용사)

저 꽃은 무척 예쁘다.  
저 꽃은 무척 예뻐다.  
저 꽃은 무척 예쁠 것이다.  
저 꽃은 무척 예쁘구나.

이처럼 중학교 3학년 2학기 5. ‘품사의 종류’ 단위에서는 용언의 개념만을 설명하였을 뿐, 그 용언이 활용될 때, 규칙적으로 활용이 되는 예나, 규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활용될 때의 예는 나타나 있지 않고 교사에게도 더 심화된 학습 내용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규칙 용언과 규칙 용언은 고등학교 『문법』 ‘3. 단어 (3) 품사’에 포함되어 설명되고 있을 뿐, 중학교 국어지식 내용에서는 선택,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 빙

‘△, 빙’은 고등학교 『국어 (하)』 ‘1. 국어가 걸어온 길 (2) 중세 국어’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지식이며, 중학교 국어 지식 내용에는 선택, 조직되어 있지 않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생활국어 3단원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에서도<sup>32)</sup> 현대 국어의 음운체계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한

3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1』,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국어의 음운(모음과 자음)

글 창제 당시나 중세, 근대 국어의 음운의 변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2단원 (1) ‘표준어와 방언’에는 국어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방언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예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심 내용의 이해를 도와야 할 예로 든 내용이 학습 경험이 없는 국어 지식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른 영역에 국어지식 내용이 통합 구성되어 있을 경우, 영역 간의 유기적인 단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어지식 내용의 학습이 선행되어 있지 않다면, 학습자는 대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 ① 모음 : 말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  
 ·단모음(10개) : 발음되는 도중에 입모양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모음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꺾	ㅡ	ㅜ
중모음	ㅐ	ㅑ	ㅓ	ㅗ
저모음	ㅔ		ㅕ	

- 이중 모음(11개) :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함  
 →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 ② 자음 : 말할 때 혀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목 안 또는 입 안의 어떤 곳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19개)

		두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혓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안올림 소리	예사소리	ㅂ	ㄷ, ㅌ	ㅈ	ㅊ	ㅎ
	된소리	ㅃ	ㄸ, ㅎ	ㅉ	ㅑ	
	거센소리	ㅍ	ㅌ	ㅊ	ㅋ	
올림 소리	콧소리	ㅁ	ㄴ		ㅇ	
	흐름소리		ㄹ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물론, 방언의 가치라는 중심 내용을 돕는 세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국어 지식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히 넘길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고르기 위해 문장들 사이의 중요도를 판단해야 하는 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선행 학습이 없는 국어 지식을 생략하거나, 간략히 설명하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 4. 평가의 실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읽기 영역에서 언급된 국어 지식 내용은, 학습자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거나 중학교에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학습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문제를 살펴보면 ‘표준어와 방언’의 학습 목표에 따른 평가 초점과 방법<sup>33)</sup>에는 어긋난 평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학습하지 않은 국어 지식과 관련된 평가 문제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은 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중간고사 평가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33) 『중학교 3-1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p.150.

지도서에서 제시한 평가 초점에 따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대단원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글을 읽으며 문장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원의 평가도 이러한 목표에 따라 글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장이나 정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평가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문장의 중요도 평정에 적절한 다양한 읽기 자료와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단원 학습 목표가 두 가지로 나뉘듯이 ‘중심 내용 파악하기’의 평가도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문장의 중요도를 평정하여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sup>34)</sup>

(라) 다음으로, 방언은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와 같은 현상이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인이 그만큼 말을 쉽게 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6. (라)의 예로 적절한 것을 모두 찾으시오?

- ① 더워 → 더버                      ② 김치 → 짐치                      ③ 여우 → 여시  
④ 먹이다 → 맥이다                ⑤ 아지랑이 → 아지랭이

※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sup>35)</sup>

(나) 다음으로, 방언은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구개 음화, 전설 모음화’와 같은 현상이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인이 그만큼 말을 쉽게 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 또한, 방언 속에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옛말에서 쓰이던 어휘가 그대로 쓰이는가 하면, 불규칙 용언이 규칙 용언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옛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라) 아울러,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준다.

34) 휘문중학교, 2005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16번 문제.

35) 은광여자중학교, 2005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3번 문제.

3. 다음 말들은 방언의 가치 중에서 어느 사항과 관련이 있는가?

- ㉠ 더워 - 더버
- ㉡ 김치 - 짐치
- ㉢ 아따! 날씨 겁나게 좋아부요 .

- ① ㉠-(나) ㉡-(다) ㉢-(라)
- ② ㉠-(라) ㉡-(나) ㉢-(다)
- ③ ㉠-(다) ㉡-(라) ㉢-(나)
- ④ ㉠-(라) ㉡-(다) ㉢-(나)
- ⑤ ㉠-(다) ㉡-(나) ㉢-(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6)

(나) 표준어도 여러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의 제정이 무의미하다.

다음으로, ㉡방언은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 방언 속에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울러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준다.

끝으로, ㉤방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들어 있어서 민족성과 전통,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0. (나)의 ㉠ ~ ㉤ 중 <보기>와 관련이 깊은 것을 두 가지 고른다면?

<보기>

여우 - 여시, 더워- 더버, 김치 - 짐치, 먹이다 - 맥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6) 대명중학교, 2005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10번 문제.

‘표준어와 방언’ 단원에 대한 평가 문제의 출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사용 지도서의 지침대로 간략한 설명만으로 그치거나, 중학교 국어지식 내용에 선택,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어지식 내용을 평가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더라도,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는 평가를 위해서, 국어 지식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암기하거나, 혹은 별도의 학습이 학습자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결국, 바람직한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어지식과 다른 영역 간의 유기적인 단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학년별 교육과정 내용과 단원 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과정 내용 및 그에 따른 단원 구성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먼저, 교육과정 일부가 단원 구성에서 누락되거나 반대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 단원 구성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 내용의 학년별 계열성이 지켜지지 않거나, 내용 진술에 있어서 국어지식의 개념이나 내용 이해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이 되지 못하거나, 가리키는 범위가 모호한 추상적인 부분도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교과서의 단원을 재구성하여 좀 더 효과적인 국어 교수·학습을 마련하고자 한다.

## IV.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내용 체계의 개선 방안

현행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최상위 목표는 ‘국어사용 능력의 향상’이다. 이 목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은 기능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편찬할 때 이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국어지식을 선정하여 통합단원으로 구성한 결과 국어지식 영역 내적인 질서보다는 다른 영역의 질서의 의해 학습 내용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7)</sup> 국어지식은 국어과의 다른 어떤 하위 영역보다 지식 체계 내적인 질서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서는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선정, 조직 구성할 때, 고려한 사항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지식의 난이도와 순차성
- (2) 언어 구조의 복잡성
- (3) 동일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

이들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가 결정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지금의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이다.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소’를 중학교 1학년에 단원을 구성한 점이 그 증거가 된다. 용언을 모르는 학습자들에게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붙여 씀도 허용한다.’는 맞춤법 규정을 가르치는 것도 ‘순차성’을

37) 황미향, 「‘국어지식’ 관련 단원 구성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34집, (서울: 국어교육학회, 2002), p.264.

고려하지 않고 단원을 구성했다는 증거가 된다.

또, 두 번째 ‘언어 구조의 복잡성’은 언어 구조가 단순한 것을 먼저 배열하고 복잡한 것을 나중에 배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구성 상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구성이 학습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원리가 아닐 수 없다. ‘꽃병’이라는 합성어가 ‘꽃’과 ‘병’이 합쳐진 사실이 ‘ㄱ’이나, ‘ㅂ’ 등의 음운이 입 안의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는 소리인지보다 훨씬 쉽고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일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이라는 원리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영역은 그 영역의 속성상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어 지식 영역은 내용에 따라서 쓰거나 말하기 영역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문법적인 내용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관련을 맺기가 어렵다. 더욱이 각각의 단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관련을 지어 학습하기가 훨씬 어렵다. 즉,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2. (1)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읽기 영역 속에 학습자가 아직 배우지 않은 국어 지식 내용인 ‘구개음화’나 ‘전설 모음화’ 등이 나오는데, 효과적인 읽기 영역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4. 음운의 변동’을 1단원으로 구성하여 국어 2단원보다 선행되어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 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국어 지식 내용의 교과서 단원 구성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과서 단원 구성의 조건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교과서 단원을 재구성해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국어지식 내용 체계 구성의 조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인 1-10학년까지 단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학년에서 내용을 심화·확장시키고, 2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학년에서 다시 심화·확장시키는 식으로 지식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국어지식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자들이 문법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할 때에도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의 영역을 심화·확장시키거나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인 1학년에서 6학년 과정에서 배운 국어지식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심화·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언어 형식 단위의 크기 등의 요소는 제외하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국어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부터 구성하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씩 어렵고 복잡한 지식들을 학습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단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2. 교과서 단원 구성의 개선 방안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르면 국어지식 영역은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규범과 적용’의 네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를 기준으로 국어지식들을 앞에서 논의한 국어지식의 난이도와 학습의 순차성을 기준으로 국어지식 영역의 단원 구성을

위한 내용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자 한다. 즉, 각 국어지식을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 순서, 그리고 선행 학습이 없어도 학습할 수 있는 내용부터 선행 학습이 많이 필요한 내용 순서로 위계화 하여 단원을 새로 구성하고자 한다. 또 그 내용은 중학교 국어지식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국어지식 내용 체계의 교과서의 효과적인 단원 구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등학교(10학년) 국어지식 내용을 학년별개정안에 포함시켜 표를 구성하였다.

### 1) 국어의 본질 영역

국어지식 영역 내의 교육 내용 체계에서 ‘국어의 본질’ 범주는 국어에 대한 지식이고, 이의 일차적인 교육 목적은 지식의 이해와 지식의 활용에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의 단원이 학습자가 지식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바로 단계성과 계열성, 통합성이다. 즉, 선행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개념을 학습한다거나, 개념만 알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를 빙빙 돌려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여야 한다. 통합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7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국어사용 능력 신장’이므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이 우선 배열되고, 이들 영역의 통합성을 위해서 국어지식 영역이 배열되어 있어서 정작 단계성과 계열성이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인 국어지식 영역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아서 이러한 단원 구성으로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어의 본질’ 영역에서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때 철저히 선행 학습 여부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특별한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단원들은 기존의 내용 체계를 따르는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중에서 ‘국어의 본질’을 단계성, 계열성, 통합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면 다음 [표6]과 같다. 모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배워나가야 지식을 습득하기에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오른쪽의 교육과정 내용은 해당 단원이 현행 교과서 구성 체계에서 배열되어 있는 순서와 새로 구성한 순서가 달라졌음을 [1-국-1] 등과 같은 학년 번호로써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단원명만으로 학습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7] ‘국어의 본질 영역’의 단원 재구성

영역	단원명	교육과정 내용
국어의 본질	언어의 세계	[1-국-1]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안다.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국-1]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2-국-2] 국어의 역사성을 안다.
	남북한의 언어	[3-국-1]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 2) 국어의 이해와 탐구 영역

국어지식 영역 내의 교육 내용 체계에서 ‘국어의 이해와 탐구’ 범주도 국어에 대한 지식이고, 이의 일차적인 교육 목적은 지식의 이해와 지식의 활용에 있다. 따라서 ‘국어의 이해와 탐구’ 영역을 재구성할 때의 고려할 사항은 앞의 ‘국어의 본질’과 같다.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 중에서 ‘국어의 이해와 탐구’를 단계성, 계열성, 통합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면 다음 [표7]과 같다.

[표8] ‘국어의 이해와 탐구 영역’의 단원 재구성

영역	단원명	교육과정 내용
국어의 이해와 탐구	낱말의 의미	[1-국-5]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2-국-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2-국-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발화의 기능과 표현	[2-국-6] 발화의 기능을 안다.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국-3]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품사의 종류	[3-국-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상황에 맞게 말하기	[1-국-6] 담화의 구성을 안다.
	낱말과 형태소	[1-국-2] 음절의 개념을 안다. [2-국-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음운의 변동	[3-국-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문장의 구조	[3-국-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3-국-5] 문장이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 3) 국어의 규범과 적용 영역

이 영역의 교육 내용은 맞춤법 및 표준 발음 등과 관련된 각종 규범에 대한 지식 습득과 그 지식을 실제의 국어 생활에 활용하여 보다 향상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1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중에 표준어와 표준 발음에 대한 관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단원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등학교 『국어(하)』의 부록에 ‘표준어

규정'이 실려 있을 뿐이다. '맞춤법'에 관한 내용은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표준어'에 대한 내용도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하여 학습할 필요성이 있지만, 본고는 현행 교과서에 구성된 국어지식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어 단원을 새로 구성하여 삽입하는 등의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국어의 범주와 적용 범주에 해당하는 단원은 '맞춤법', 한 단원밖에 없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에 구성되어 있는 '맞춤법' 관련 단원은 맞춤법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품사와 문장 성분을 배운 후인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옮겨 재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중학교 국어지식의 단원에서는 제외시켰다.

[표9] '국어의 규범과 적용 영역'의 단원 재구성

단원명	단원명	교육과정 내용
국어의 규범과 적용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3-국-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 4) 국어에 대한 태도 영역

이 영역의 교육 내용은 흥미나 동기 유발에서 사회적 습관 형성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기존의 '국어에 대한 태도' 범주의 구성도 이 원칙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규범과 적용' 범주와 '국어에 대한 태도' 범주가 완전히 따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규범과 적용' 범주에 해당하는 단원과 '국어에 대한 태도' 범주를 함께 묶어서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내용과 관련된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옮겨 재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표10] ‘국어에 대한 태도 영역’의 단위 재구성

영역	단원명	교육과정의 내용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 생활의 반성	[1-국-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바르게 쓰기	[2-국-7]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3-국-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5) 학년별 단원의 재구성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지식 영역 전체의 중학교 학년별 단원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앞서 순서화한 내용들을 각 학년에서 국어지식 영역에 할당한 단원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단순히 순서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에 따른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규범과 적용’ 등의 요소가 각 학년에 고루 배치되도록 하였다.

[표11] 국어지식 영역의 학년별 단위 재구성<sup>38)</sup>

학년	단위명	교육과정 내용	영역
1학년	언어의 세계	[1-국-1]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를 안다.	본질
	국어 생활의 반성	[1-국-4] 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을 안다. [1-국-7] 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해 태도
	낱말의 의미	[1-국-5]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안다.	이해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2-국-4] 국어의 조어법을 안다. [2-국-5]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이해 이해
	발화의 기능과 표현	[2-국-6] 발화의 기능을 안다.	이해
2학년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국-1] 언어의 사회성을 안다. [2-국-2] 국어의 역사성을 안다. [2-국-3]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본질 본질 이해
	품사의 종류	[3-국-3] 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을 안다.	이해
	바르게 쓰기	[2-국-7] 국어사용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태도
	*다양한 표현과 이해 [고1-국-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이해)		

38) \*부분은 본고의 연구범위가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국어지식 내용 체계이나 바람직한 단위의 재구성을 위해서 따로 표시하여 포함시켰다. 다음 표는 고등학교 국어지식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상)	짜임새 있는 말과 글	[고1-국-4]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이해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3-국-6]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3-국-7] 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적용 태도
	문장의 구조	[3-국-4]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의 구성 원리를 안다. [3-국-5] 문장이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을 안다.	이해 이해
	언어와 세계	[고1-국-1]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본질
고등학교 1학년 (하)	함께 하는 언어생활	[고1-국-3]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안다.	이해
	바른 말 좋은 글	[고1-국-6]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고1-국-7]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적용 태도
	국어가 걸어온 길	[고1-국-2]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이해

3학년	음운의 변동	[3-국-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이해
	남북한의 언어	[3-국-1]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본질
	상황에 맞게 말하기	[1-국-6] 담화의 구성을 안다.	이해
	낱말과 형태소	[1-국-2] 음절의 개념을 안다. [2-국-3] 형태소와 낱말의 개념을 안다.	이해 이해
	*전통과 창조 [고1-국-8]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태도)		

이를 현행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2] 현행 교과서와 재구성된 단원 내용 비교<sup>39)</sup>

학년	학기	현행 단원		재구성된 단원	
		단원	영역	단원	영역
1 학년	1	국어 6. 언어의 세계	본질	국어 6. 언어의 세계	본질
		생활국어 4. 국어 생활의 반성	이해 태도	생활국어 4. 국어 생활의 반성	이해 태도
		생활국어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이해	생활국어 5. 낱말의 의미	이해

39) 고등학교 국어지식 내용의 현행 교과서과 재구성된 내용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고등 학교 1학년	국어(상)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이해	국어(상)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이해
	국어(상)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이해	생활국어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적용 태도
	국어(상) 4. 바른 말 좋은 글	적용 태도	생활국어 2. 문장의 구조	이해
	국어(상) 8. 언어와 세계	본질	국어(상) 8. 언어와 세계	본질
	국어(하) 1. 국어가 걸어온 길	본질	국어(하) 3. 함께 하는 언어생활	이해
	국어(하) 3. 함께 하는 언어생활	이해	국어(상) 4. 바른 말 좋은 말	적용 태도
	국어(하) 7. 전통과 창조	이해	국어(하) 7. 전통과 창조	태도

	2	생활국어 2. 낱말과 형태소	이해	생활국어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이해
		생활국어 5. 낱말의 의미	이해	생활국어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이해
2 학년	1	생활국어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본질 이해	생활국어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본질 이해
		생활국어 6. 바르게 쓰기	태도	생활국어 5. 품사의 종류	이해
	2	생활국어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이해	생활국어 6. 바르게 쓰기	태도
		생활국어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이해	국어 (상)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이해
3 학년	1	생활국어 2.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적용 태도	생활국어 4. 음운의 변동	이해
		생활국어 4. 음운의 변동	이해	생활국어 5. 낱말의 의미	이해
		생활국어 6. 남북한의 언어	본질	생활국어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이해
	2	생활국어 2. 문장의 구조	이해	생활국어 6. 남북한의 언어	본질
		생활국어 5. 품사의 종류	이해	국어(하) 7. 전통과 창조	태도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로 중학교 1학년에 있던 ‘낱말과 형태소’ 단원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옮겨왔다는 것과 3학년 맨 마지막 단원이던 ‘품사의 분류’ 단원이 2학년 1학기로 옮겨갔다는 것, 그리고 3학년에 있던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옮겨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낱말과 형태소’ 단원에서 다루는 단어나 낱말, 형태소 등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는 데 있어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품사의 분류’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른 문법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쌓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 기존의 3학년 보단 한 학년 앞선 2학년에 구성하였다. 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은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를 익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품사’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품사’ 단원을 2학년으로 옮겨 배치하였기 때문에 3학년에 그냥 두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띄어쓰기와 관련된 소단원은 까다로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학년을 조금 높여 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본문의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록을 바로 찾아서 확인하는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의 1학년 과정에서 ‘담화’를 다루고, 2학년 과정에서 ‘발화’를 다루는 것도 순서를 바꾸어 화법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더 적은 ‘발화’와 관련된 ‘발화의 기능과 표현’을 1학년으로, 1학년의 ‘상황에 맞게 말하기’를 3학년에 옮겨 구성하였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생활국어’는 ‘국어’의 읽기 영역과의 통합권을 고려하여 권 내의 구성도 다소 조정하였고, 고등학교 국어(하)권은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와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하였다.

### 3. 교수 · 학습 적용의 실제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재구성한 내용 중, ‘음운’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 · 학습 계획을 순서대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13] ‘음운’의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계획-1

교육과정 내용	[2-국-3] 국어의 음운 체계를 안다.	
	<p>□ 학습 내용: 음성과 음운의 차이, 국어의 모음 체계, 국어의 자음 체계 알기.</p> <p>□ 학습 활동: 국어의 모음은 혀의 앞 뒤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에 따라,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찾게 함.</p> <p>[기본 활동] 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게 함으로써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가지게 함.</p> <p>[심화 활동] 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표로 나타내게 함으로써 국어의 음운 체계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고자 함.</p>	
교과서 단원	생활국어 2학기 1학년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 국어의 음운	
학습 목표	국어의 음운이 지닌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시간 구성	기본: 3~5시간, 보충심화: 1시간	
기본 학습	활동1	·음운의 단위 파악하기 ·음운의 개념 확인하기
	활동2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분류 기준 파악하기
	활동3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단모음 분류하기 ·혀의 높이에 따라 단모음 분류하기
	활동4	·음절의 유형 파악하기 ·유형별 음절 찾기
	활동5	·자음 중 콧소리 확인하기 ·콧소리의 특징 파악하기 ·흐름소실의 특징 파악하기
	활동6	·자음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류하기
보충 심화	자기 점검	·자기 점검하기
	활동2	·입술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단모음 분류하기 ·두 입술에서 소리 나는 자음 파악하기 ·혀끝과 윗잇몸에서 소리 나는 자음 파악하기 ·혀 뒤와 여린 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자음 파악하기
	활동4	·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표로 완성하기

이 단원은 생활국어 2학년 1학기에 ‘3단원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2)국어의 음운’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영역 내 통합 대단원으로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체계’가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였다. 소단원 ‘(1) 국어의 언어적 특성’이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학습하는 학습량이 적은 단원이기 때문에 (2)단원의 여섯 가지 활동도 적절한 편이다.

이 단원은 특별한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이후의 모든 ‘음운’ 영역 학습에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단원 구성에서도 처음에 배열되었다.

[표14] ‘음운’의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계획-2

교육과정 내용	[3-국-2]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안다.
<p>□ 학습 내용: 음운 변동의 개념,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의 종류, 음운의 변동과 올바른 발음과의 관계, 음운의 변동과 표기의 관계 알기</p> <p>□ 학습 활동: 음운 변동과 관련되는 규칙을 지식으로 전달하지 말고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통해 규칙을 귀납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력과 탐구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학습의 최종 단계에서는 국어 음운 변동의 규칙을 정리하여 주고, 이 지식을 올바른 발음과 올바른 철자의 학습과 관련짓도록 한다.</p> <p>[기본 활동] 음운 변동 규칙을 알고, 음운 변동의 예들을 각각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응시킴으로써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이해시킴.</p> <p>[심화 활동] 음운 변동 규칙과 표준 발음, 표기의 관계에 대해 토의하게 함으로써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한 지식을 실제의 언어생활에 적용시키고자 함.</p>	
교과서 단원	생활국어 3학기 1학년 4.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음운의 동화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학습 목표	·우리말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이해한다. ·우리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시간 구성	기본: 3시간, 보충심화: 1시간
기	(1) 활동1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하여 알아보기
본	(2) 활동1 ·자음 동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학 습	활동2	·구개음화에 대하여 알아보기
	활동1	·음운의 축약에 대하여 알아보기
	활동2	·음운의 탈락에 대하여 알아보기
보 충 심 화	자기 점검	·자기 점검하기
	활동1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음운의 변동에 관한 문제 풀기
	활동2	·사람 이름을 자료로 음운의 변동 학습하기
	활동3	·제시된 낱말을 보고 음운 규칙 찾아내기
	활동4	·문장을 음절, 낱말, 형태소로 나누기

이 단원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소화하기에 적당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영역간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어’ 읽기 영역에 해당하는 ‘2. (1)표준어와 방언’과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4단원을 1단원으로 옮겨 선행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표13] ‘음운’의 교육과정 내용 및 교수·학습 계획-3

교육과정 내용	[1-국-2] 음절의 개념을 안다.
<input type="checkbox"/> 학습 내용: 음절의 형성 원리, 음운과 음절의 관계, 음절의 개념 알기 <input type="checkbox"/> 학습 활동: 우리말 음절의 특징을 알고, 이를 활용해 음성언어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함. 이를 위해, 음절이 모음 단독 또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로 발음의 단위가 됨을 알게 함. [기본 활동] 음운과 음절의 관계를 통해 음절의 개념을 알게 함. [심화 활동] 우리말의 음절 유형을 조사하여 국어 음절 형성 방식을 알게 함.	
교과서 단위	생활국어 1학기 2학년 2. 낱말과 형태소 (1) 음절과 어절, 낱말
학습 목표	‘음절’항목에 대한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시간 구성	기본: 1~2시간(단원길잡이가 포함된 시수), 보충심화: 1시간
기 본	활동1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음절의 개념 알기. ·문장을 음절로 나누어 보기

학 습	활동2	·문장을 바르게 띄어 쓰고, 어절의 개념 알기. ·문장을 어절로 나누어 보기
	활동3	·음절의 유형 파악하기 ·유형별 음절 찾기
	활동4	·어절을 의미를 고려하여 더 나누고 낱말의 개념 알기. ·문장을 낱말로 나누어 보기.
	활동5	·문장을 음절, 어절, 낱말로 나누어 보기.
보 충 심 화	자기 점검	·자기 점검하기
	활동1	·음절, 형태소, 낱말의 개념 확인하기
	활동2	·문장을 음절, 낱말, 형태소로 나누기

이 단원은 ‘2. 낱말과 형태소 (1) 음절, 어절, 낱말’과 같이 단원이 구성되어 있어, 음절에 대한 단원명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단원은 ‘음운’ 부분은 1학년 (2) 내용과 ‘낱말’부분인 2학년 (4)내용의 통합 단원이다. 대단원명은 교육과정 내용을 뚜렷이 제시하는 ‘음절, 형태소와 낱말’로 하고 소단원명도 ‘(1) 음절, (2) 형태소와 낱말’로 하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기본활동은 ‘음운과 음절의 관계를 안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음운과 음절의 차이점과 관계를 알게 하여 음절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는 데 학습 중점이 있다. 또 음운 개념을 익히고 음운이 모여 음절이 형성된다는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관한 개념이 없는 학습자가 ‘외’를 ‘ㅛ’와 ‘ㅣ’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음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단모음, 이중모음과 같은 ‘음운의 개념’ 학습은 생활국어 2학년 1학기 ‘3단원 (2) 국어의 음운’에서 학습하며, 이 단원에서는 학습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 ‘음운’과 ‘음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리 ‘음운의 개념’에 대한 학습 내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음운’ 영역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교수·학습하도록 단원을 배열하였다.

## V. 결론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영역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탐구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과제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사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탐구의 대상, 즉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아야 하고,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응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재의 역할로, 현재까지 교수·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으므로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은 보다 효율적인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과목 중 7·8·9학년, 즉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반영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혀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 『국어』와 『생활 국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교과서의 학년별, 학기별 단원 구성이 선행 학습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확장·심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II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영역의 중학교 교과서 반영 정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소’를 중학교 1학년에 단원을 구성한 점 등은 지식의 난이도와 순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구성 상태를 살펴보면, 언어 구조가 단순한 것을 먼저 배열하고 복잡한 것을 나중에 배열한다는 ‘언어 구조의 복잡성’은 학습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원리가 아닐 수 없다. ‘꽃병’이라는 합성어가 ‘꽃’과 ‘병’이 합쳐진 사실이 ‘ㄱ’이나, ‘ㅂ’ 등의 음운이 입 안의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는 소리인지보다 훨씬 쉽고 친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일 학년 내에서 다른 영역의 교육 내용과의 관련성’이라는 원리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2. (1)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읽기 영역 속에 학습자가 아직 배우지 않은 국어지식 내용인 ‘구개음화’나 ‘전설 모음화’ 등이 나와 있어 사실상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얻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낱말과 형태소’ 단원에서 다루는 단어나 낱말, 형태소 등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는 데 있어 다른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다루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품사의 분류’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른 문법적인 지식을 효율적으로 쌓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역시 기존의 3학년 보단 한 학년 앞선 2학년에 구성하였다. 또 ‘바르고 정확하게 쓰기’ 단원은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를 익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품사’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 ‘품사’ 단원을 2학년으로 옮겨 배치하였기 때문에 3학년에 그냥 두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띄어쓰기와 관련된 소단원은 까다로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학년을 조금 높여 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본문의 내용 중 이해가 안 되

는 부분은 부록을 바로 찾아서 확인하는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적합하여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외시켰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2. (1) 표준어와 방언’ 단원은 읽기 영역으로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인 ‘중요한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아직 배우지 않은 국어지식 내용인 ‘구개음화’나 ‘전설 모음화’ 등의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역 간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생활국어』 ‘4. 음운의 변동’을 1단원으로 구성하여 국어 2단원보다 선행되어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 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기존의 1학년 과정에서 ‘담화’를 다루고, 2학년 과정에서 ‘발화’를 다루는 것도 순서를 바꾸어 화법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더 적은 ‘발화’와 관련된 ‘발화의 기능과 표현’을 1학년으로, 1학년의 ‘상황에 맞게 말하기’를 3학년에 옮겨 구성하였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생활국어’는 ‘국어’의 읽기 영역과의 통합권을 고려하여 권 내의 구성도 다소 조정하였고, 고등학교 국어(하)권은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와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교과서만이 수업 자료도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점을 생각한다면, 1종 교과서인 국어 교과서는 표준화된 교재라는 위상에 알맞게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단원을 구성하고 적절한 수업 자료를 제시하여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유용한 교재가 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대한교과서.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_\_\_\_\_ (2000), 『중학교 생활 국어 1-1』, 대한교과서.

\_\_\_\_\_ (2001),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1』,  
대한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2001), 『중학교 생활 국어 1-2』, 대한교과서.

\_\_\_\_\_ (2001),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1-2』,  
대한교과서.

\_\_\_\_\_ (2002), 『중학교 생활 국어 2-1』, 대한교과서.

\_\_\_\_\_ (2002),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2-1』,  
대한교과서.

\_\_\_\_\_ (2002), 『중학교 생활 국어 2-2』, 대한교과서.

\_\_\_\_\_ (2002),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2-2』,  
대한교과서.

\_\_\_\_\_ (2003), 『중학교 생활 국어 3-1』, 대한교과서.

\_\_\_\_\_ (2003),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3-1』,  
대한교과서.

\_\_\_\_\_ (2003), 『중학교 생활 국어 3-2』, 대한교과서.

\_\_\_\_\_ (2003),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생활국어 3-2』,  
대한교과서.

\_\_\_\_\_ (2004),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

## 2. 단행본

- 김광해(1999),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광해 외 4인(1999),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김차균(1998), 『음운학 강의』, 태학사.
- 남기심 · 고희근(2000),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명완 외(2003),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국어과 교육』, 박이정.
- 박영목 외(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 박영목 외(2001), 『국어과 교수학습론』, 교학사.
- 박영순(2004), 『한국어 문법 교육론』, 박이정.
- 이관규(1999), 『학교 문법론』, 월인.
- 이대규(2001), 『국어교육론』, 교육과학사.
- 이익섭(1996), 『국어학개론』, 학연사.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정원수(1992), 『국어의 단어 형성론』, 한신문화사.
-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 최현섭 외(2003),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허재영(2001), 『국어과 교육의 탐색』, 박이정.

## 3. 소논문

- 서혜경(2001), 「제7차 교육과정 ‘국어지식’ 영역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 손영애(1995), 「1차-5차 교육 과정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 분석 연구」, 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한영목(1993), 「효과적인 ‘문법’지도에 대한 연구 - 제6·7차 고등학교

교 ‘문법’과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논문집 20-1,  
충남대 인문과학 연구소.

황미향(2002), 「‘국어지식’ 관련 단원 구성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연구』 34집, 국어교육학회.

#### 4. 학위논문

김나미(2000), 「중학교 문법 교육의 실태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소영(2001),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분  
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인숙(2002),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및  
상관성」,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주환(2002), 「국어 지식 영역의 탐구 학습에 대한 연구」, 강릉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김지연(2000), 「제6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 분  
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류승현(2003),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연  
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류초희(1996), 「문법관과 문법 내용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서성희(2003),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국어 지식 내용에 관한 연  
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용배(1999), 「중학교 국어과목 ‘언어영역’연구-제5차와 제6차 교육  
과정 비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병훈(2003), 「중학교 생활국어 ‘국어지식’ 단원의 연구 -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삼형(1994), 「설명적 텍스트의 내용 구조분석 방법과 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월임(1996), 「중학교 문법단원 분석 및 평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중숙(2002),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분석적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주영(2002),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희진(1999),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언어지식의 체계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난숙(2002),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미자(1992), 「중학교 국어교과서 문법단원 분석 및 평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유선(2003),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연구 -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정연(2002),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 문법 단원의 평가와 재구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지영(2003), 「제6·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목 ‘국어지식’ 영역 단원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tent System in the Korean Knowledge Area for Middle Schools

**Pyo, Eun-ju**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erms of a teaching-learning method, the seventh curriculum recommends inquiry learning for the Korean knowledge area. For this reason, teachers should assist learners to solve a problem for themselves, not encourage them to understand a learning task. To allow teachers to perform their duties as assistant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object of inquiry, or contents of a textbook, so that it can fit learners' level and learners can apply the existing contents and solve some problems with a teacher's assistance. Since a textbook has been the most fundamental in teaching and learning, minute analysis and review of a textbook is an essential part to plan and implement efficient instruction. Of course, a textbook is not absolute nor the only instructional material.

Still, as its curricular contents are very professional and abstract, a Korean language textbook, which is the first-class textbook, should faithfully reflect curricular objectives and contents to construct units and provide appropriate instructional aids as a standardized teaching material useful both for a teacher and a learner.

This study aimed at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flection of the Korean knowledge area in a textbook for seventh-, eighth-, and ninth-graders, or the middle school level, in order to find out problems as a national common basic subject for the seventh Korean language curriculum. To do this, the study examined Kore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in Practice, both of which are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seventh- through ninth-graders, in order to see if the content system of a textbook by school years and terms was based on prior learning to extend and reinforce the learning and to make corrections if there was no such basis.

For this purpose, Chapter II examin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venth curriculum to see if the content system of the Korean knowledge area in a Korean language textbook fits a curricular spirit and examined the reflection of the Korean knowledge area in the curriculum for middle schools, which was the target of discussion. On this ground, Chapter III identified problems of the content system of the Korean knowledge area at the middle school level. That is, an attempt was made to examine unit construction of a textbook by school years and to identify problems of organic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knowledge area and other areas. In addition, actual evaluation items were presented to indicate the burden

for learners as a problem. Chapter IV first presented conditions of the content structure for knowledge about Korean language as a plan to improve problems of the content system of the Korean knowledge area and reconstructed the unit of the Korean knowledge area by areas and school years. Besides, the reconstructed content system of knowledge about Korean language was presented as an actual teaching-learning plan.

With formalized school education and large-size of schools, regardless of regions, a textbook is now the strongest learning material to control education all over the country, so tha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its content system in pursuit of efficient learning.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earning content system suitable for learners' prior learning situations to provide a textbook consistent with the main direction of the seventh curriculum which gives the first priority to learner-centered education.